

지역 소식통

부안군 상서면, 장전마을 전통마을숲 녹색쉼터 조성

부안군은 상서면 장전마을의 방치된 전통마을숲을 새롭게 정비하고 생활환경 개선기능과 자연, 생태, 휴양, 산림경관기능을 높여 주민들에게 소통의 공간 등 녹색쉼터를 조성한다.

올해 1월 장전마을을 선정, 협약을 완료하고, 2월 실시계획 후, 3월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하여 전통마을숲 및 산림문화를 보전해 대중물 효과를 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전마을 전통숲에 있는 상록침엽수인 소나무와, 편백나무의 수목활력도 및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관리시설을 배치해 주민들에게 맑은 공기 속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1억원(도 50%, 군 50%)의 예산이 투입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설 명절 '비상진료체계' 운영

고창군은 오는 9~12일 설 연휴 주민의 건강보호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고창종합병원은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보건기관 12개소, 병·의원 2개소, 문 여는 약국 7개소를 일차별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창군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진료소(11개소)는 설 연휴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진료를 실시한다. 권역별 진료지역을 나누어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 중 진료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군(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복지체감도 향상 기여

주민도움센터 지난해 3015건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정읍시와 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주민도움센터'가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주민도움센터는 2011년 사회복지심부름센터로 시작해 현재 3명의 상근직원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있다.



정읍시와 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주민도움센터'가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정읍시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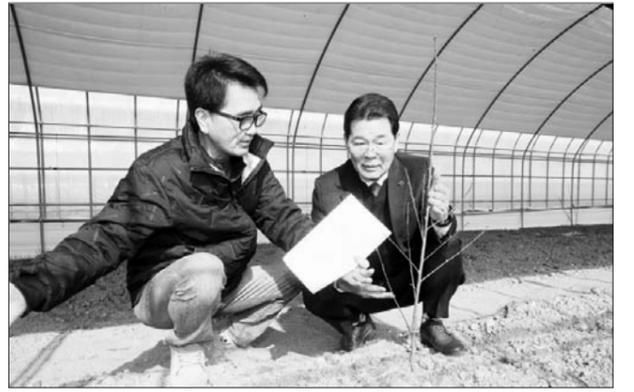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시장보기, 민원업무 신청 전달, 물품 전달, 병원·약국 동행 등을 돕고, 위기가정 발굴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015건의 운영 실적으로 월 평균 약 250건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제도상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주민도움센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의 사회 취약계층 주민들을 찾아 일상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민원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도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현재 도내 12개 시·군에서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주민도움센터(063-538-1966)에 전화접수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 2일 열린소통대회 일환으로 부안군 상서면을 방문한 권익현 군수가 현장행정에 나서고 있다.

부안 상서면, 2024 군민과의 열린소통

주요업무 성과보고, 경로당·사업장 방문 관계자 격려

부안군 상서면은 2일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면민 등 100여명과 함께 하는 열린소통대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두구두구 난타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금강건설 신종희 대표와 명성농장 박복수 대표가 각각 근농장학금 1백만원을 기탁하였고, 부안군 발전을 위해 (유)천원이 엔지 송상호 대표와 대립건설(상서면 회시마을 출신) 박원종 향우가 각각 1백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이어 양해승 상서면장은 "군과 면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쳐 상서면이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희망찬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라보 부안 라이프!' 슬로건으로

2024년 군정비전 및 운영방향이 담긴 동영상 상영과 더불어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진술하고 자유롭게 나누는 '군민소통대화' 시간에 면민들이 평소 군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마을 경로당 2개소 및 사업장 2개소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과 새해덕담 등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업 추진 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행정을 끝으로 상서면민과의 '열린소통대화'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양해승 상서면장은 "군과 면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쳐 상서면이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희망찬 각오를 다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역 맞춤형 벼 품종개발 2년차 돌입

3개 예비품종 실증시험 예정

정읍시는 올해 지역에 적합한 벼를 찾는 '맞춤형 벼 품종개발(SPP) 2년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벼 품종 개발 사업은 수요자가 직접 참여해 정읍에 가장 어울리는 품종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육종가, 농업인, RPC, 소비자까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1년차)에는 예비품종 전주677호 등 5개 계통과 안평벼 등 비교품종 5개를 비교하는 실증시험을 추진해 전주677, 전주681, 전주684 등 3개 품종을 선발했다.

우수한 품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증시험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에서의 식미평가가 중요한데, 지난해에는 두 차례의 식미평가를 거쳐 많은 의견을 모았다.

올해도 3개 예비품종으로 실증시험을 거칠 예정이며, 실증시험과 더불어 식미평가를 추진해 적합한 품종을 찾고, 내년(3년차)에 품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주연 기술보급과장은 "정읍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도입하기까지 충분한 소통과 더불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4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복분자 재배기술 개선 등 역점

고창군이 지역소득작목인 복분자와 벼 새해영농교육을 지난달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고창군농업기술센터와 권역별 농협 교육장에서 열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년 농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첫 단추다.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역특화작목 중심 핵심기술과 PLS, 토양검정, 2024년 기본형 공익지불제 등 시책사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올해의 농사를 성공적으로

실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교육은 기후변화에 맞는 복분자 재배기술 개선 및 실천, 벼 품종특성 등 탄소중립 실천교육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농업인의 수요와 영농현장에서 문제시 되는 해결사항을 질의 응답 토론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작물별 재배시기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수시로 진행해 한 해 농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설 명절 수요가 많은 멸치, 굴, 비새트 등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해서 △원산지 거짓(허위·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 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강화와 제도 정착유도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하서면, '2024 군민과의 열린소통' 성료

부안군 하서면은 지난 2일 하서면 문화센터에서 부안군수와 주민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서면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 행사로 하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하서 석불난타' 팀의 난타축하공연에 이어, 하서면의 사계를 담은 영상 감상시간을 가졌으며, 하서면 적십자봉사회, 문수마을 김부월씨의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부안군 근농장학금 기탁증과 김선용씨(김경중 하서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자)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증서 수여를 시작으로 면정 주요업무 보고, 군정비전공유,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하서면은 지난 성과와 '따뜻한 행정, 모두가 행복한 하서'를 비전으로 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부라보 부안 라이프!'를 슬로건으로 한 2024년 군정비전 및 운영방향이 담긴 비전영상 상영 시간을 가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하게 나누는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하서면 마을 경로당 2개소 및 주민 사업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하서면민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일정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